

임원 후보 출마의 변(辯)

□안녕하십니까 ?

2016년 KLPGA 전부 이사로 입후보한 구영희입니다.

존경하는 KLPGA 회원 여러분!

우리가 몸 담고 있는 KLPGA는 세계 속의 KLPGA로 성장 했습니다.

올해 총 33개 대회 개최와 212억원의 총상금 규모는 미 LPGA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세계적인 부어로 입지를 굳혔다는 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모습이 한때의 영광으로 흘러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의 KLPGA는 지난 과거 우리 선배프로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세계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후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성과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회원들의 입장에서 회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KLPGA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부척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KLPGA 회원 여러분!

KLPG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골프산업의 정체 속에서도 매년 꺾고점을 찍고 있는 KLPGA 두어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 KLPGA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협회의 체질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큰임무를 주신다면 지출되는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회원들의 개선점 건의에 귀를 귀울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및 행정운영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다하며 직원들의 업무평가 및 합리적인 자산관리 언론, 스폰서 등 돈독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03월 11 일

작 성 자 :

구영희

